국힘 당권 '1강 3중' 재편… 결선투표 최대 변수로

김기현, 오차범위 밖 선두…안철수·천하람 경합, 황교안 약진
목포 출신 민영삼 최고위원 후보, 각종 여론조사 1위 '이변 예고'

국민의힘 안철수 당 대표 후보(오른쪽)와 김기현 당 대표 후보가 26일 오후 서울 도봉구민회관에서 열린 도봉갑 당협 신년 당원교육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26일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판세가 요동치면서 당권 구도는 '1강 3중'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특히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진 목포 출신 민영삼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최근 1위를 기록하면서 이변을 예고하고 있다.

애초 김기현·안철수 후보가 양강구도를 이루고 있었지만, 최근 잇따라 공개된 여론조사들에서 김 후보가 오차범위 밖 선두로 훌쩍 치고 나가면서 안 후보와 천하람 후보가 경합하고, 황교안 후보도 약진하는 형국이다.

당권 레이스가 종반전으로 접어들면서 선두 김 후보가 과반을 차지하며 1차 투표에서 승부를 마무리할지, 아니면 보수정당 사상 처음 도입된 결선투표가 치러질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여러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에서 40%대 지지율을 유지하며 선두를 굳혀가는 김 후보는 '과반 달성'을 강조하며 1차 투표에서 전대 레이스를 끝내겠다는 각오다.

김 후보를 추격하는 입장이 된 안 후보는 "김 후보는 양자 대결로 가면 확장성이 없다"며 결선투표에서 '뒤집기'를 노리고 있다.

결선투표가 성사된다면 최대 변수는 후보들의 합종연횡 가능성이다.

결선투표에 진출하지 못한 3, 4위 후보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쏠리느냐에 따라 1위 후보의 '선두 굳히기' 또는 2위 후보의 '막판 뒤집기'가 연출될 수 있어서다.

다만 천 후보와 황 후보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는 상황에서 결선투표 전에 후보들 간 연대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결선투표가 있는 만큼 추격하는 주자들 입장에서는 각자 양자구도에서 '반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종반전으로 갈수록 각자도생 열기도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판세 전망은 후보들의 선거 전략에서도 드러난다.

김 후보 측은 '1강 3중' 구도가 굳어졌다고 보고 투표율과 득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공들일 태세다.

이번 전당대회가 '책임당원 100% 투표'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투표율이 높을수록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친윤(친윤석열)계 지지를 기반으로 한 조직표 동원력에서 우위를 자신하는 것이다.

김 후보가 주말에도 1~2시간 단위로 시간을 쪼개며 당협 방문 일정을 소화하는 것도 조직표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추격자 3인방은 기자회견, 라디오나 TV 출연, SNS 메시지 발신 등 '공중전'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2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4명 중 국민의힘 지지층 413명을 대상으로 한 최고위원 지지도에서 민영삼 후보가 14.8%로 1위를 차지했다.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서 최고위원을 지낸 김재원·조수진 후보가 각각 13.6%, 13.1%로 선두 그룹을 형성했다. 다음으로 태영호(9.2%)·김병민(9.1%)·김용태(8.7%)·허은아(6.4%)·정미경(6%) 후보 순이었다.

청년 최고위원은 장예찬 후보가 43.7%로 독보적인 1위였고, 김가람(9.8%)·이기인(7.8%)·김정식(6.6%) 후보가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90%)과 유선(1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국민의힘 지지층 413명은 ±4.8%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대통령실 "정순신 인사 검증 미흡 인정"

자녀, 고교시절 학폭…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만에 낙마

대통령실은 26일 정순신 변호사가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하루 만에 낙마한 데 대해 "인사 검증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직 후보자 자녀와 관련한 문제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위 공직자 후보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등은 통상의 인사 검증에 활용되는 공적 자료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 때문에 정 변호사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저지른 학교폭력과 그로 인한 법정 공방도 인사 검증 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헌법 체계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다만 철저한 검증이라는 목적이 부당한 정보 수집이라는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과거와 비교해 고위 공직자에 대한 국민 눈높이는 크게 높아진 반면, 검증 수단은 더 줄어들어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향후 인사 검증 시스템의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전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는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정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들 문제로 송구하고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며 "가족 모두 두고두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의 사의를 곧바로 받아들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회의원 후원금 상위권, 친윤·친명 싹쓸이

野 김남국 전체 1위…장제원 與 1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금이 2021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도 309개 국회의원 후원회가 총 585억7900여만 원을 모금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407억1300여만 원보다 178억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172개 후원회가 총 343억원, 평균 1억9900여만원씩, 국민의힘 소속 121곳은 총 221억원, 평균 1억8200여만원씩 각각 모금했다.

정의당 6곳은 총 9억4900여만원(평균 1억5800여만원)을, 무소속 8곳은 총 8억9100만원(평균 1억1100여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밖에 기본소득당(총 1억5400여만원)·시대전환(총 1억5100여만원) 등 순이었다.

국민의힘에서 3억원 이상 모금한 의원은 '원조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 이철규(3억70여만원), 정희용(3억1200여만원) 의원 등 친윤 핵심 그룹이 많았다.

민주당에서는 친명계 의원을 비롯해 강경파 의원들이 상위권에서 두드러졌다. 전체 모금액 1위를 기록한 김남국 의원은 대표적 친명계 의원이며, 역시 친명계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3억500여만원, 박찬대 의원은 2억9300여만원을 모금해 상위권을 차지했다. /오광록 기자 kroh@

광주 노사관계 만족도 업주·노동자 '격차'

광주시의회 조사…사업주 71.2점·노동자 50.7점

노사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사업주들은 높은 반면 노동자들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위원장 채은지)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주)폴인사이트에 의뢰해 지난해 11~12월까지 광주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팩스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사관계 평균 만족도가 71.2점으로, 응답자의 67.3%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광주 상생일자리재단이 노동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 실태조사 결과 노사관계 만족도는 50.7점에 그쳤다. 이는 노사관계에 대한 노사 양측의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노사 관계 개선을 위해 사업주는 '노동자 대상 불법행위 근절'과 '노동자 기본권 보장', '의견 수용', '근무환경 개선', '복지 증진'을 우선시 한 데 비해 노동자들은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 '조직문화 변화'를 선결과제로 꼽았다.

주요 노동 정책과 법률 관련 지지도는 사업주의 경우 '임금피크제'가 64.3점으로 가장 높았고, 노동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최다로 꼽았다. 노동문제 발생 시 적극 개입해야 할 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사업주의 50.3%, 노동자의 55.1%가 '지방정부'를 꼽았다.

노동관련 제도와 관련해서는 사업주는 '최저임금의 차등적 적용'을 선호했고, 노동자는 '노동법 위반 사업장 엄중 처벌'을 꼽았다. 특히 파업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지지도가 44.4점, 노동자의 지지도가 61.1점으로 나타나 양 측의 입장 차이가 분명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명품매장가맹점모집

(구찌, 버버리, 프라다, 발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

모집지역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전북(전주)
▲ 전남(여수, 목포, 순천)

운영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네이버 및 인터넷 플랫폼 입점 판매중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현 본점 매점 성업중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율 : 년 15% 확정)
(담보제공 및 물품제공)

본점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 랜드 뽀짝 옆) 필 명품관

010-2288-0849 / 062-511-0849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MODERN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